

계란 달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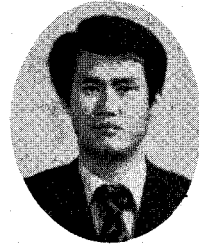
우리집에서는 가끔 계란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바깥사람입장으로는 월급의 40% 이상을 부담해주는 채란양계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싼 가격에 높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계란을 많이 먹음으로서 가족들이 일년내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고, 안사람은 지금도 많이 먹고 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먹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을때문에 날로 알파해지는 월급봉투때문에 불만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식비를 가능한한 줄이기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콩나물도 한 주먹에 150 원 이상이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른봄 나물인 두릅도 대여섯개에 삼백원 한다고 하니 가계부의 주름살때문에 계란 사기를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작년말부터 시원찮은 계란값은 소비 증대의 한계성과 공급과잉에 있는것 같다. 틀림없이 소규모 양계업자는 쓰러져가는데 대군양계업자들이 육추나 사육수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것 같다. 사료의 소비량은 3% 가량밖에 줄지 않았고 가정 주부의 소비의욕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의 반인 20%는 떨어진것 같기 때문이다. 육계에 있어서 켄터기 후라이드치킨이 품질 면에서 정통성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신규소비를 개척해내어 불황중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감한 사육수수 감소가 일어나지도 않고 새로운 소비패턴이 구성되지도 않은 계란이 불경기란 파트너를 만나서 체화와 가격하락을 반복하게 된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본인이 만난 어떤 양축가는 채란양계업을 그만두고 양돈과 육계로 업종을 바꾸면서 재미있는 「업종전환의 변」을 들려준적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세축산양계업자들이 그런대로 해나갈수 있는 사업은 육계나 비육우 밖에 없다고 단언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계는 연속사육과 대량사육이 경영효율과 질병 판매면에서 어렵다는 것이요

계란...



김 정 인
(신춘사료상무 본지편집위원)

비육우는 송아지의 대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양돈의 경우 수 많은 부업농가의 희생을 거름으로하여 대규모 기업 양돈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현실이 웅변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실례로 용인의 J농원에서 돼지가 질병으로 많이 폐사 했기 때문에 봄철 돼지의 값이 의외로 좋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양돈업자도 만난적이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는 쇠고기의 수입에 이어 돼지고기의 수입이 잇따르거나 않나해서 그들의 얼굴도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육계업자들은 도계법의 실시설에 전전 궁궁하고 있다.

국내 유력지중 모신문은 일전에 축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의 「계란팔기 캠페인」 및 홍성지구의 채란양계업자 도산 위기를 크게 보도하여 주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신문사에는 농대출신의 기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계란팔기 캠페인」이 가두에서 벌어진 것은 그런대로 성과가 지대하였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어려울때 일수록 힘을 내어 아이디어를 따내야 되겠고 남이 도와줄것을 기다리기전에 뭘 생각을 하여야 하겠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새로이 계란소세지를 개발하여 계란의 대량 신규소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계란의 홍콩수출도 소량이기는 하지만 시작되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참고 노력하는 길이외에 지름길은 없을 것 같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축산업 특히 채란양계업을 하는 분이 없다고 볼때 새로 입추할 병아리를 10%씩만 줄이도록 하자. 오르는 산이 높으면 정상에서의 쾌감은 더욱더 높다고 하니까.